



1977년 12월 21일 광주도심에서 바라본 무등산의 넉넉한 모습이 어머니의 품처럼 느껴진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임란·한국전쟁... 고비마다 항쟁 거점

무등산
세계의 국립공원으로

광주일보 창사 61주년 캠페인

② 기원과 역사속 무등산

무등산은 산세가 유순하고, 어느 곳에서 보나 동그스름한 모습이 한결같고, 후덕한 느낌을 준다고 해서 광주·전남 지역민들은 '어머니의 산'으로 부른다. 이처럼 포근한 무등산은 역사 속 고비마다 지역민과 함께 해왔다.

무등산 자락에 위치한 망월동 분도마을에는 고려말 명장 정지장군의 경렬사와 묘역이 있다.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왜적과 싸우다 순국한 제봉 고경명의 흔적, 충신이자 지조 높은 선비였던 해강 송재민의 사우 윤암서원, 간신의 모함으로 29세 젊은 나이에 억울하게 옥사한 충장공 김덕령 의병장의 넋을 모신 충장사, 정묘호란 때 큰 공을 세운 전상익장군의 사당 충민사, 일제와 맞섰던 수많은 의병들의 흔적 등 무등산 곳곳에는 국난을 이겨낸 선열의 얼이 깃들어 있다. 또, 5·18광주민주화항쟁의 영령들이 잠들어 있는 국립 5·18 민주묘지도 무등산 자락 양지 바른 곳에 위치해 있다.

광주일보도 1952년 창사 이후 어려울 때마다 넉넉한 무등산의 품에 기대어 왔다. 1980년 5·18 민주항쟁 때는 10일 동안 신문발행이 중단되는 등 언론의 기능이 마비되기도 했지만, 같은 해 6월 4일 광주일보의 전신인 옛 전남일보를 '민주 시민의 긍지...무등산은 알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광주 시민의 피맺힌 절규를 대변하기도 했다. 광주일보는 또 80년대 후반들이 각종 난개발과 시민들의 취사행위 등으로 오염되는 무등산을 지키기 위해 '무등산을 살리자'라는 제목의 연중 기획보도로 '무등산보호 시민 운동' 등을 이끌어

1145년 삼국사기서 첫 등장
무진악→서석산→무등산 변천
역사 흔적들 명승·고적으로 남아
산 곳곳 구국 영웅들 흔 것들어

내기도 했다.

▲역사속에 남아있는 무등산 기록=무등산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백성의 숭배와 사랑을 받아온 진산(鎭山)이라는 기록이 남아 있을 정도로, 역사가 깊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무등산을 이르는 명칭은 무진악에서부터 서석산, 무당산, 무덤산 등 다양하다. 백제 이전까지는 무물이나 무당산이라 불렀고, 통일신라 때는 무진악 또는 무악으로 표기하다가 고려 때부터 서석산이라는 별칭과 함께 무등산으로 부르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육당 최남선은 무등산은 입석대가 천연의 신전으로 전라도 지방종교의 중심지였으며, 예부터 무등산 전체가 당산으로 '무당산'으로 불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역사에서 무등산의 이름이 기록에 처음 나타난 것은 삼국사기다.

우리나라 최초의 역사서인 '삼국사기'(1145년)의 잡지 제 1 제사편을 보면 무진악이라는 산 이름이 남겨져 있다. 무등산이라는 이름이 등장한 것은 '고려사'(1451년)인데 '무등산'이 있다. 일명 무진악이라고도 하고 서석산이라고도 한다'라는 짧막한 기록이 있다.

'세종실록지리지'(1454년)에서는 '무등산은 무진에 있는데 넉넉하고 후덕하며 높고 크다. 신라 때 소사가 됐고, 고려 때 국제를 지냈다. 조선 때 고을의 수령에게 제를 올리도록 했다'며 비교적 상세히 기록돼 있다.

'신증 동국여지승람'(1530년)에서는 무등산은 (관산)현의 동쪽 10리에 있는 진산이며, 무진악 또는 서석산이라고도 한다. 하늘같이 높고 큰 것이 웅장하게 50여리에 걸쳐 있다. 한라산, 남해·거제 등이 한눈에 들어온다. 이 산 서쪽 양

지 바른 언덕에 돌기둥 수십 개가 즐비하게 서 있는데 높이가 백자나 된다. 산 이름 서석은 이로 말미암은 것이다...고 기록돼 있다.

'여지도서'(1759년)에는 '금당산은 무등산 기슭, 주의 서남쪽 15리에 있다. 분적산은 무등산 기슭, 주의 북쪽 5리에 있다. 삼각산은 무등산 기슭, 주의 북쪽 5리에 있다...며 무등산과 주변 산의 거리를 기록해 놨다.

무등산에 대해 가장 방대한 기록을 남긴 역사서는 조선 후기에 편찬된 김정호의 대동지지다. 대동지지는 무등산과 규봉암, 풍혈대, 사인암, 장원봉, 주검동 등에 대해 기록했다.

▲역사서를 통해 본 무등산 항쟁기=무등산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군사 요새였다. 각종 역사서에는 백제 때 무등산에 성을 쌓으니 백성들은 믿고 편안히 살면서 즐거워서 노래를 불렀고, 이를 '무등산곡'이라 한다는 글이 남아있다. 현재 무등산에 옛 산성이나 성지표지가 남아있지 않지만, 역사서의 기록처럼 백제 때 성이 있었다면 후백제 견훤군과 왕건군의 싸움도 이 성을 두고 벌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고려사에는 '1381년(우왕 7년) 4월 지리산 전투에서 패한 왜적들이 무등산 규봉 바윗돌 사이에 목책을 세우고 숨어들었다. 전라도 도순문사 이윤진이 결사대 100명을 모집해 높은 곳에 올라가 돌을 굴러 내리고 불화살을 쏘 목책을 불사르자 적들이 언덕에서 떨어져 죽은 자가 많았다'는 등의 기록이 있다. 일제시대의 무등산은 의병장들의 거점이 되기도 했다. 일본 측 전남경찰부에서 당시 기록한 전남쪽도사에 따르면 무등산권에서 의병과 관련된 전투 등 사건이 수십 건이나 기록돼 있을 정도로 치열한 항일운동을 벌인 내용이 남아있다.

1950년에 일어난 한국전쟁은 무등산에 큰 피해를 남겼다. 그 중 사람의 피해가 컸는데, 1951년 증심사의 주요 건물이 전소됐고, 원효사와 규봉암도 이를 전후해 불에 탔다. 또 무등산을 중심으로 한 빨치산 활동이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하면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끊이지 않았다. 지금의 산수동~원효사간 관광도로도 한국전쟁이 낳은 산물이다. 무등산에 은신중인 빨치산에 대한 작전수행을 위해 1950년 12월부터 경찰이 주민들을 동원, 계림동~원효계곡 12km구간에 도로를 개설했고, 이를 확·포장한 것이 지금의 도로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무등산 갤러리 최영훈 작 '무등의 봄' Oil on Canvas(116.7 X 91cm)

"선대 때부터 살아온 무등산 자락은 내가 태어난 곳이다. 마음에 안식처이며 앞으로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기도 하다. 내 마음의 따뜻한 고향을 화려하면서도 따뜻하게 화폭에 담았다."



나와 무등산 임형철 광주·전남 녹색연합 공동대표

등반가·환경지킴이로 42년 동고동락 "군부대 등 철거...정상을 시민 품으로"



1985년 8월 무등산 세인봉 정상에서 임형철(사진 오른쪽) 당시 광주등산학교 교수와 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나는 무등산에서 등산화 신발 끈 매는 법부터 배낭 꾸리는 법과 야영하는 방법을 배웠다. 또 알벽 등반과 빙벽 등반 기술을 배우고 익혔다. 이것을 밑천으로 국내 수많은 산을 오르내렸다. 1977년 조선대 산악회에 가입한 뒤엔 무등산을 매주 오르며 전문적인 알벽·빙벽 등반 기술을 배우고 익혔다. 하지만, 몇 해를 못 넘기고 이 배움의 즐거움을 막을 내렸다. 1980년 광주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다 전두환 쿠데타 세력에게 짓밟혔고, 당시 무등산과 함께 즐기는 삶 자체가 사치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해부터 나는 시민들에게 '새해 첫날에는 무등산에서 만나자'라고 외쳤다. 매년 중머리재와 장불재로 이어지는 해맞이 행사에서 떠오르는 해를 가슴으로 받으며 시민들과 함께 민주와 자유를 향한 노래들을 부르고 또 불렀다. 내가 무등산을 지키고 환경을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때는 대학산악부 시절이었다. 주말과 방학이면 전국의 국립공원과 전 세계의 수많은 산을 올랐고, 야영을

했다. 특히 세계 최고 산 높이를 자랑하는 에베레스트 등반은 세계 가장 가난한 나라 네팔의 허가를 얻어야 했다. 당시 에베레스트 등반 허가는 1년에 한 팀이요, 대번 등 오물을 반드시 1주일 거리에 있는 산 아래로 가지고 내려와야 했다. 그때 나는 '바로 저 것이다. 귀국해 선조가 물려준 무등산을 보호해서 후손에게 물려주자'라고 생각했다.

1982년 12월, 나는 우리 지역 대학산악부 선·후배들과 함께 무등산 일주도로 공사현장(바람재-토끼등) 점거와 함께 즉각 공사를 중지시켰으며, 1987년 '무등산을 살리자'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또 천왕봉 정상 개방과 군부대 이전, 장불재의 방송통신 시설 이전 및 통폐합 등을 주장했다. 1988년에는 무등산을 시민의 힘으로 적극 원상복구하고자 지역민과 함께 (사)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를 조직했다. 이후에도 무등산을 위한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주저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무등산과 함께 살아갈 것이다.

독자투고 보내주세요

'나와 무등산'은 무등산과 얽힌 추억이나 인연 등을 소개하는 열린 마당입니다. 200자 원고지 7매 분량의 글과 관련 사진을 받습니다. 보내실 곳은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사 '무등산 시리즈' 담당자 앞. e-메일 mudeung@kwangju.co.kr.

보약, 홍삼은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90,000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협 653-12-003100
에금주 박주환